

도시기억아카이브

당신이 꽃 연원뜰

연원풍경

도시기억아카이브

당신이 꽃 연원들



정원(庭園)을 넘어 정원(情園) 도시로 가는 길

모노팻식물문화연구소

홍덕은

집 앞의 즐비한 화분들, 상추와 고추를 심어둔 크지 않은 도시 텃밭. 화려하지 않지만 친숙한 소풍경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기 이어진다. 소박한 정원이지만 우리의 정서와 맞닿아 있고, 그 속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고 더없이 행복하다.

안동호 사진가는 서울에서 충주로 온 지 8년 되었다. 충주를 중심으로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다. 사라져 가는 도시 흔적들을 기록하며, 충주라는 도시를 깊숙이 보고 사유하며, 그 곳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방인인 작가가 지역에 정착하게 된 방식이다. 작가는 최근 발표를 마친 <문화동사사람들>, <용산주공> 이후 새로운 기록 대상을 탐색하던 중 충주의 연수동에 위치한 '연원뜰'이라는 정원과 마주한다. '연원뜰'은 작고 아담한 한평정원이다. 마을의 버려진 자투리 땅에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꽃을 심어 가꾼 정원이자 사랑방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정원에 대한 열기는 매우 뜨겁다. 정원이 전 국민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며 지역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소멸해 가는 지방 도시들의 대안으로 경쟁하듯 정원도시를 선언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국가정원은 전남의 순천만 정원과 울산의 태화강 정원 두 곳이다.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부권 국가정원 조성 추진이 언급되고 가시화되며, 충주 역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가열되어 있다. 남부권에 집중된 국가 정원을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대하며, 충주 단금호 일대를 중심으로 중부권에도 조성하겠다는 발표 이후 충주 도시 곳곳에 정원이 생겨나고 있다.

연수동에도 18개의 정원이 탄생했다. 공간과 실정에 맞춰 모양도 이름도 제각각이다. 가꾸는 사람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둘 생겨났다.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사람들의 정은 크고 넘친다. 식물을 가꾸는 것은 꽤나 많은 정성이 깃든 일이다. 애써 길러낸 화초와 채소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인정을 느낀다. 쓰레기로 골머리 아팠던 땅을 꽃이 피어나는 땅으로 바꾸는 마법같은 손길은 자부심이 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문 앞, 마당 앞, 담장, 골목길, 자투리땅에 만들어진 개개의 정원은 주민들의 일상이자 삶이 되고, 마을을 잇는 문화의 화수분이 된다. 퇴색하는 원도심의 마을을 가꾸는 움직임으로, 마을의 자랑거리이자, 그들을 정주(定住)하게 하는 정원이다. 작가는 물리적 공간으로써의 정원의 기록과 그곳과 관계 맺는 사람, 흔적의 기록으로 시선을 교차하며 그가 정주하고 싶은 도시 충주를 따뜻한 시선으로 드러낸다.

가꾸지 않으면 퇴화하고, 결국 소멸한다. 그의 이야기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도시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적 탐구와 관심이 진정으로 소통하게 하는 힘이 되고, 그만의 시각으로 담담하게 도시를 기록하는 작가의 시선에서 도시와 그곳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관객에게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작은 이야기와 가치들에게 관심 가져보라고 인도한다.



연원들 정원을 지키는 사람들

허경애

권용희

김정자

새마을남녀협의회

전미정

꽃마을
정수현
빛의 정원

이상옥
꽃마을
정원

꽃마을
이유성
꽃마을

꽃마을
지중현
꽃마을

꽃마을
전미정
꽃마을

지역공동체 제1안 공모사업
정원
꽃마을

늘빛정원

충주시 예성로 400-4

허경애

늘 빛나는 정원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늘빛정원

8년 전에는 이 마을의 공터였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다. 항상 수북하게 쌓여있던 쓰레기를 다 치우고 집을 올리고 있었는데, 남은 자투리 땅에 또 마을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30여년 전 어머니가 사시던 집 옆의 공터엔 늘 동네 쓰레기가 수북히 쌓이곤 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밭을 만들고 고추, 옥수수 등을 심자 동네 쓰레기가 다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런 좋은 기억을 살려 지금의 집 옆 공터를 한평정원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늘빛정원은 이렇게 아담하고, 풍성한 정원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곳을 가꾸는 허경애(69세) 선생님은 충주에서 교사로 정년퇴직 후 텃밭과 정원을 가꾸며 지내고 있다. 오랜 교직생활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 학생들 앞에 항상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해온 모습이 지금도 묻어 나온다. TV광고 실버모델에도 도전하고, 모임이나 집앞 외출 때에도 때와 장소에 걸맞는 복식과 마음가짐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친구들에게는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고, 신선함을 선사하는 사람으로 남기위해 늘 준비하고 노력한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되돌아 보며 당당한 모습으로 하루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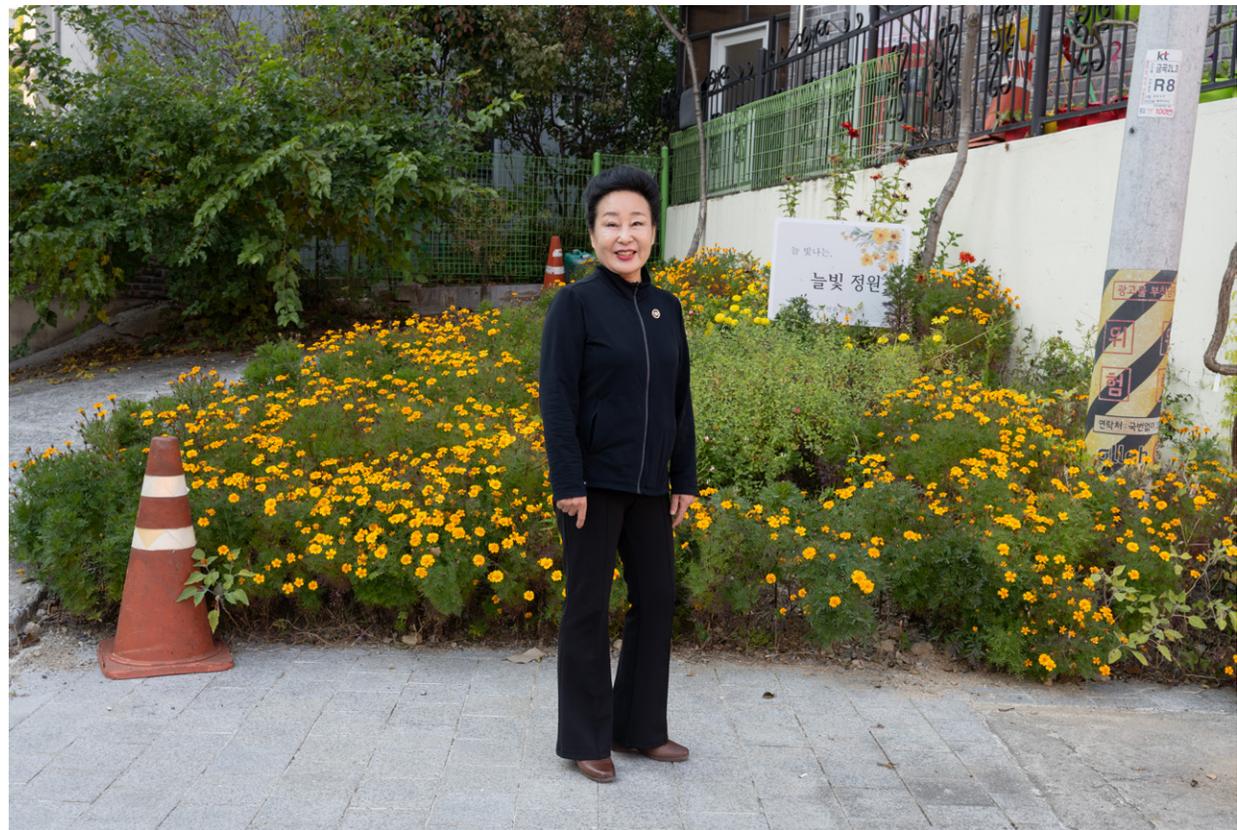
봄부터 여름이 다 지나갈 때 까지 허경애 선생님은 텃밭에서 키운 야채를 따다가 이웃과 나누고 있다. 특히 아침마다 운동삼아 텃밭을 한바퀴 돌고나면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등 상자들에 한가득 담는다. 이 야채 상자들은 곧바로 마을 어른신들께 나누어 드린다. 신선함, 훈훈한 마음이 가득이다.

지금은 연원꽃들의 주민동아리 정원 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집 앞 한평정원을 잘 가꿀 수 있게 어떻게 어떤 꽃과 나무를 구성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며 소통하고 있다. 매일 새벽 물을 주며 떠나보낸 엄마를 마주하듯 꽃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학교 일하며 아이 키울 때 생각 못했던 지난날의 엄마와 할머니의 모습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내 아이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한다.

















동수텃밭정원

충주시 연수동 482

권용희

동수마을 지킴이 권용희(73세) 통장님은 이른 아침부터 동네 한바퀴를 돌다가 동수텃밭정원을 둘러보신다. 어제 심어놓은 토마토, 고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다. 동수경로당 어르신들의 지원 덕분에 정원의 꽃과 텃밭의 야채류가 잘 자라고 있다. 동수 경로당 최준호 회장님과 어르신들은 불편한 몸도 사리지 않으시고 텃밭 돌봄에 솔선수범 앞장 서신다.

일년 내내 경로당의 반찬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어르신들의 입가에 미소가 항상 머무는 이유 같다.

동편마을 동수텃밭정원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이름처럼 텃밭과 꽃밭이 오순도순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이곳은 동수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봄부터 같이 준비하고, 가을걷이까지 함께하는 우리는 마을정원 공동체랍니다. 길가보다 조금 높이가 있어 흙이 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얀 어린이집 동생들과 마을 어른들이 함께 울타리 만드는 방법을 목공방에서 배우며 사포로 매끈하게 색칠도 알록달록 다 같이 설치도 함께 했답니다. 가끔 농작물에 주는 영양분 거름 냄새로 민원도 들어온다는 소식에 알갱이 영양제로 바꿔도 봤어요. 하지만 불평보다는 서로 칭찬하며 함께 가꾸는 동수텃밭정원의 농산물로 동수함지박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권용희 통장님덕에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는답니다. 외갓집 같은 우리 권용희 선생님덕 그리고 동수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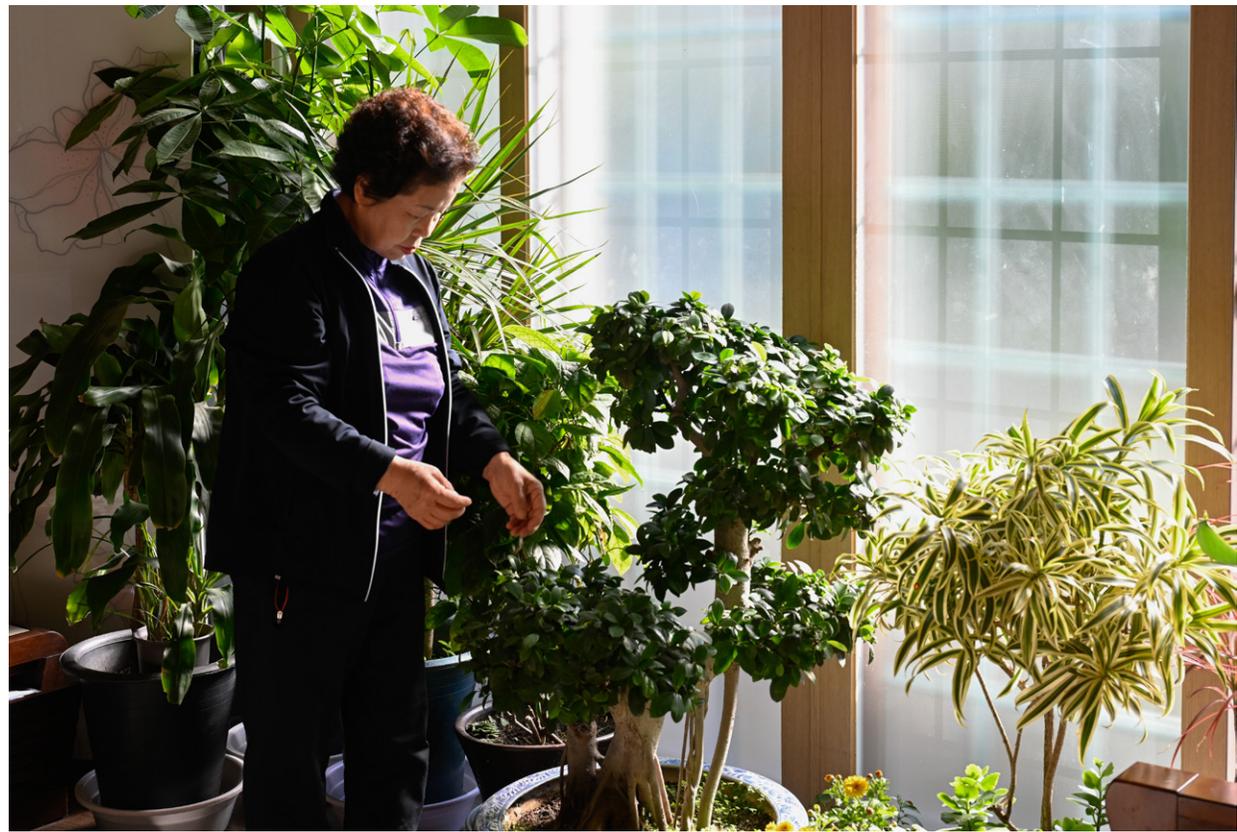
연수생태마을학교 친구들 드림















우물이 있던 정원

충주시 연수동 681-4

김국순 새마을회원, 권옥란 통장,
그리고 김정자 연원꽃뜰 부대표가
함심하여 가꾸고 있는 옛날 우물이 있던자리입니다

그 옛날,
여인들이 모여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집안 대소사부터 동네 행사까지 정보를 나누던 공동체의 안마당 이었던 곳

그 시절이 지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무거운 콘크리트 덮개가 올려지고
그 공간은 점차 아낙네들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벗어나면서

공터화 된 우물가엔 쓰레기가 더미가 쌓이고 나뭇굴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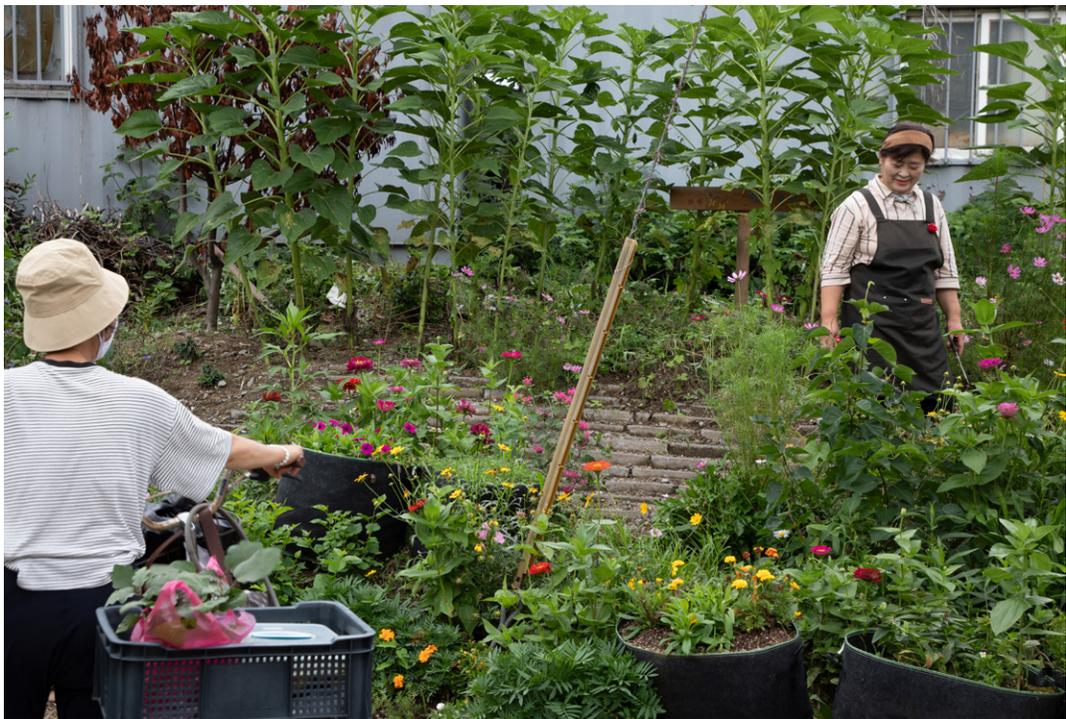
화사한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만들어지면서
옛날의 우물가에 가벼운 발걸음이 오가고 있다
골목길의 화사함에 발걸음이 오가며
예쁘다고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옛날의 우물가에서 즐거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우물이 있던 정원이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정겨운 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여름 들판이
 폭풍 성장하며 화려함이 질어질때면
 덩달아 생동감이 넘치는 김정자 사장님!

가을이 오면 다시 봄 맛이 준비라도 하듯 노트를 펼쳐든다.
 야생화와 나무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다.

노트에도,
 골목길 담벼락에도,
 우리 가슴에도...

겨울이면 그녀는 펜과 붓은 든다. 그리고 꽃그림과 시로 길고 긴 겨울을 난다.

따뜻한 한 상 대접하는 일미토종닭 사장님

들꽃

혹한 추위에
 강인함을 보이는 들꽃

봄이 오면 온 들판에
 움트는 소리가 나네
 어느새 줄기를 세우고
 파란색이나왔는지
 질기되 질긴 들꽃들

이제 봄맞이 준비가 시작되네

(2022년, 김정자)











새마을꽃동산 1,2,3정원

충주시 연수동 843, 853, 703-9

새마을남녀협의회

연수동 새마을남녀협의회 우혜진 회장님의 추진력은 꾸준하다.
그 어느 단체보다도 다양한 활동을 멋지게 해내는
연수동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 전체의 수고로
연수동 대표 명품정원이 탄생했다.

이곳은 쌈지공원으로 불리며 20여 년 동안 연수동 새마을남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2021년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새마을꽃동산'으로 명명되었다.

회원들의 재능을 발굴하여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통해 계절마다 정원이 디자인된다. 무더운
한여름 염치없이 폭풍 성장하는 풀들을 회원들은 쪼그리고 앉아 뽑는 일은 정말 힘들다. 덕
분인지 회원들은 손품, 발품이 많이 필요한 작업임을 알기에 내 일처럼 참여가 적극적이다.

명품정원! 새마을꽃동산이 회원 간 단합이 보다 깊어지고 회원 각각의 역할로 주체적으로
책임감 또한 확고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위에 모아놓은 커다란 쓰레기 봉지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내 가게, 내 건물 앞으로 자연스레 옮겨져 주위 골목 사장님들의 환경 개선 인식
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정원 안에는 오솔길이 있다. 그 옆 벤치도 자리한다. 사람들이 오가며 차 한잔 하고 반려견과
산책도 한다. 유독 남성분들이 꽃과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잠시 안정을 찾는 듯한 풍경
을 자주 목격한다. 이곳은 바로 내 집 앞마당처럼 일상에서 힐링하는 포근한 공간이 되었다.

연수지구대 앞 바위틈새에 꽃잔디가 번져 자연스러운 포토존을 기대하는 세 번째 꽃동산도
조성하였다.

2023년 12월, 6년여 동안 임기를 마치는 우혜진 회장은 "아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
요. 3년 동안 명품정원이 자리 잡기까지 회원님들의 노력이 컸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말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좋은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근면, 자조, 협동 정신과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아래
 빈곤퇴치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1970년부터 전개된 대한민국 전국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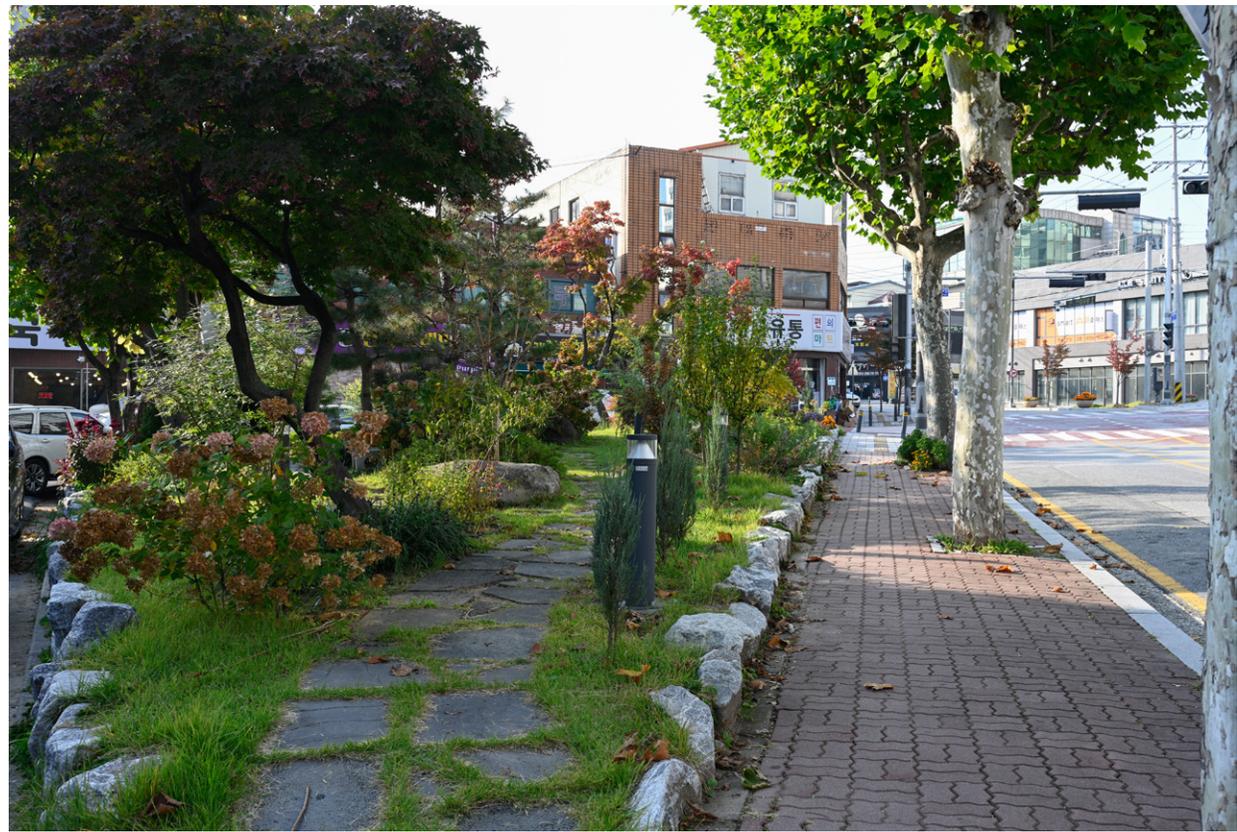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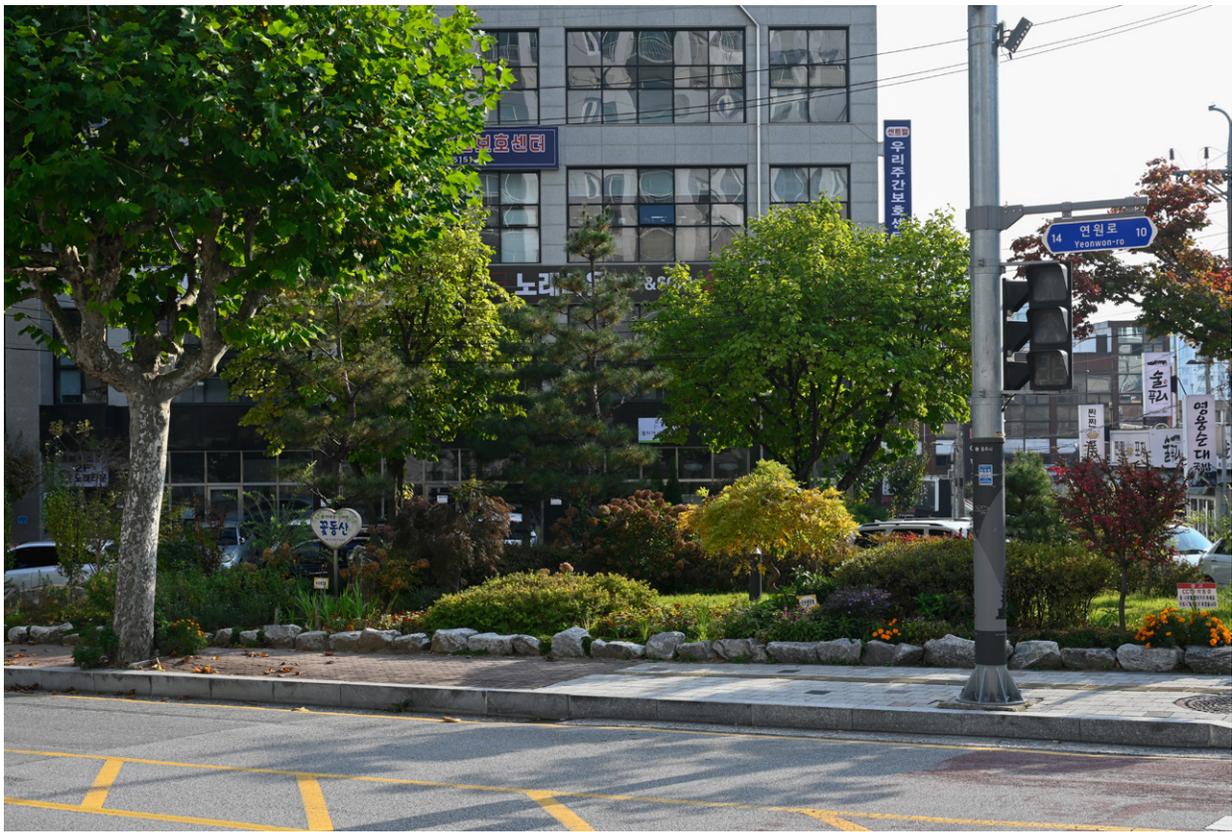


2023년 9월18일 새벽 꽃동산정원1에는
 모여든 새마을운동 회원들로 분주하다

충주시민의 한평정원을 가꾸기 위해
 이른 새벽에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연수동 새마을남녀협의회!









연원뜰정원

충주시 연수동 811-18

전미정

연수동 동편마을의 예성로 옆 이곳은 2017년 꽃밭 조성이 되었지만 주민의 관심과 손길에서 멀어져 쓰레기로 채워진 외면받는 곳이었다.

몇 해가 지난 2020년전 노희경 연수동장의 제안으로 연수(금곡)생태마을학교 마을 아이들과 주민들은 온마을 배움터로 '연원뜰'의 명칭을 온오프 설문으로 정하였다. 장미아치를 세우고 야자매트로 길도 만들며 주위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을 심어 함께 가꾸기 시작했다.

작지만 이웃과 함께 가꾸며 소통하는 사랑방 역할의 공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원오일장(4.9일) 하루를 정해 '꽃밭으로 잇는 이웃하기, 꽃잇기데이' 행사를 한다.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으로 연원뜰을 소개하고 정원 가꾸기에 함께하자 안내한다. 바로 이렇게 '연원꽃뜰'주민 동아리가 탄생했다. 꽃을 좋아하고 정원 가꾸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주민들은 보다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펼쳐나갔다. 함께 '정감계획' 회의를 통해 정원 가꾸기 위한 일정, 디자인, 식재, 관리를 주기적으로 함께하고 마을정원사들의 힐링과 배움을 위한 '정감여행', 정원 가꾸는 분들과 소통하며 네트워킹 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꽃다운 차모임' 그리고 매월 '꽃잇기데이'에는 마을정원들을 잇고 함께 산책하는 '정감산책'으로 이웃과 함께 하며 정원문화를 알리고 즐기고 있다.

'연원뜰'은 아이들에게 온마을 배움터로 생태교육과 자부심을, 주민들은 이웃이 되어 정감 있는 마을살이하는 정원문화 연수동의 중심 장소가 되고 있다.

정원으로 이웃하고 싶은 분! 언제나 연원뜰의 전미정(49세)을 찾아주세요!





프라임에셋 (주)
손해보험 · 생명보험 종합 상담 | 국내 단일 최대법인 043) 657-1500

손해보험 종합상담	생명보험 종합상담	국내 단일 최대법인
--------------	--------------	---------------

프라임에셋 (주)
손해보험 종합상담 | 생명보험 종합상담 | 국내 단일 최대법인

자동차
비교견적
최고!!

임지훈
삼평면역센터
시골정고기

경원동

평안교



당신이 꽃

회색빛 빌딩 숲 걷다 보면
 마주치는 놀라운 꽃들의 향연
 작은 꽃밭 적신 수많은 땀방울
 꽃밭 가꾸는 손길은 실 새 없네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어른들이 땀 흘려 가꾸는 꽃밭
 오늘도 연원들에게는 꽃이 핀다

꽃이 핀다
 꽃내음 따라 걸어가는 길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피었네
 저마다 다른 꽃이 모여 꽃밭 되고
 저마다 다른 향기 모인 연원에선
 '사람이 꽃이 된다'

작사. 작곡 (주)문화예술기획 살로메

노래. 이상열 바리톤

이영희 마을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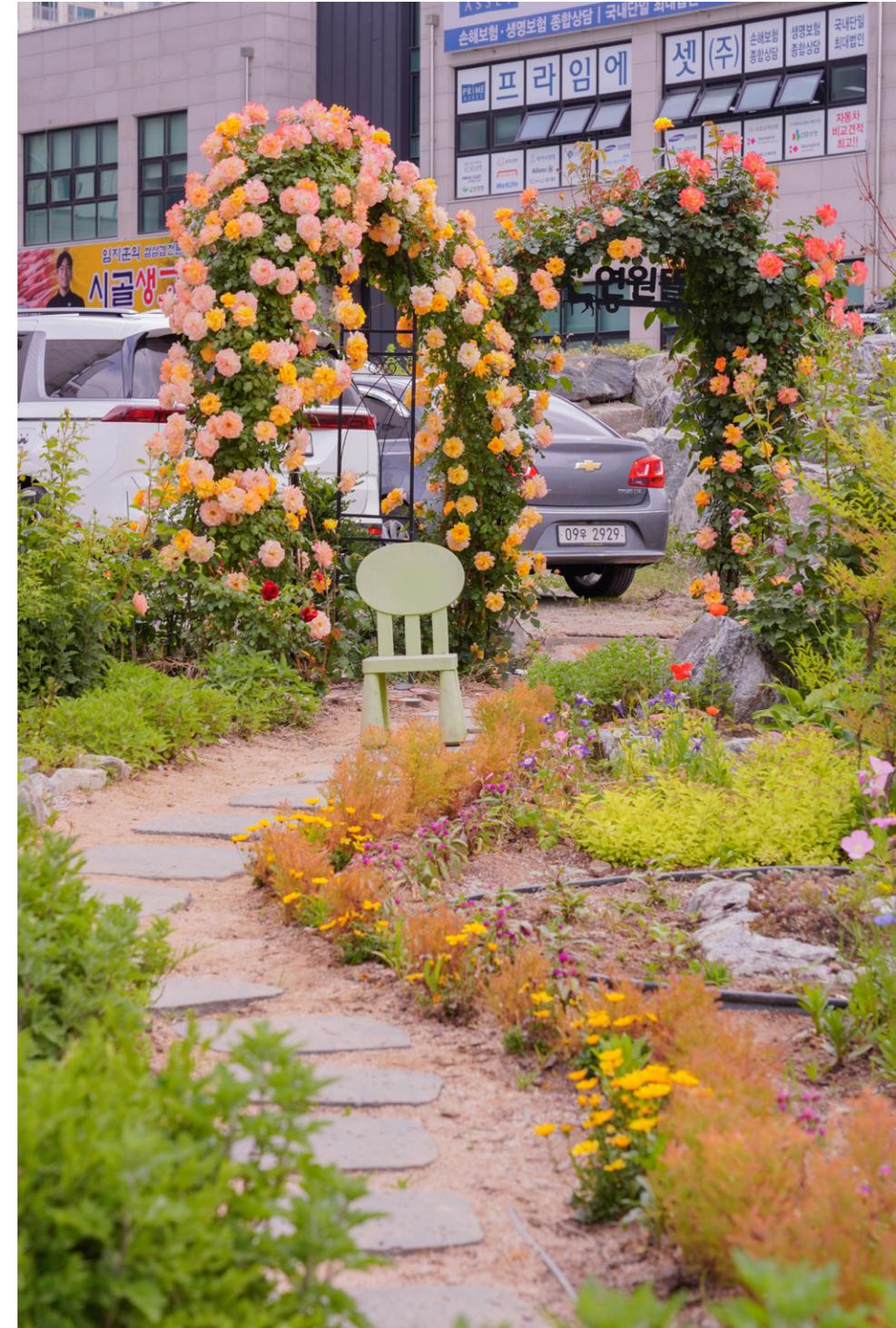
김정자 연원꽃들

우혜진 연수동 새마을남녀협의회

전미정 연수생태마을학교

주유진 연수계룡리슈빌2차 통장

2023 로컬송북, 충주 마을공동체 노래편
 연수동 마을공동체 <연원마을> '당신이 꽃'
 작업하여 노래를 발표했다.











동수마을

연수동행정복지센터 행복정원

연수동와플정원

동수마당

현주슈퍼정원

연수에덴정원



행복연수정원

문화가 꽃 피는 행복한 연수동

연수동행정복지센터를 오가는 주민들의
쉽과 미소를 선물하는 도심 속 작은 오솔길이 있는 마을정원
연수동 으뜸마을 바로 동수마을에서 마을정원이 시작되다.

이상복 연수동장, 이명주, 최은주, 한경혜 팀장





기간 및 문의: 2023. 9. 1(금) ~ 10. 31(화), 849-7764
대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검진 미수검자
인선비트: 파리바게트 케이크 교환권(50명), 베이커리 교환권 5천원권(500명)

충주 연수동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연수동와플정원

정연옥

맛있는 와플에도 금손,
화초 가꾸기에도 금손

동수 11길 곁에 정연옥 골목 사장님이 있다.
붉은 점포와 붉은 파라솔이 멋스럽게 배치된 이곳에
'꽃들이 이렇게도 자랄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사장님은 자식 키우듯 화초를 정성껏 가꾸신다.

점포 옆 나팔을 불고 있는 알록달록 분꽃이 지저분한 사각지대를 채우고 있다.
"저녁 먹어라~" 하며 엄마는 어렸을 적 이 골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질 녘까지 놓고 있는 저를 불렀죠. 저녁 준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신기하게 분꽃이 활짝 피었어요. 분꽃을 보면 어린 시절 골목에서 신나게 놀았던
친구들과 자신을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생각난다고 한다.

동수 11길 골목은 정겨운 추억이 꽃과 어울어진 곳이다.









동수마당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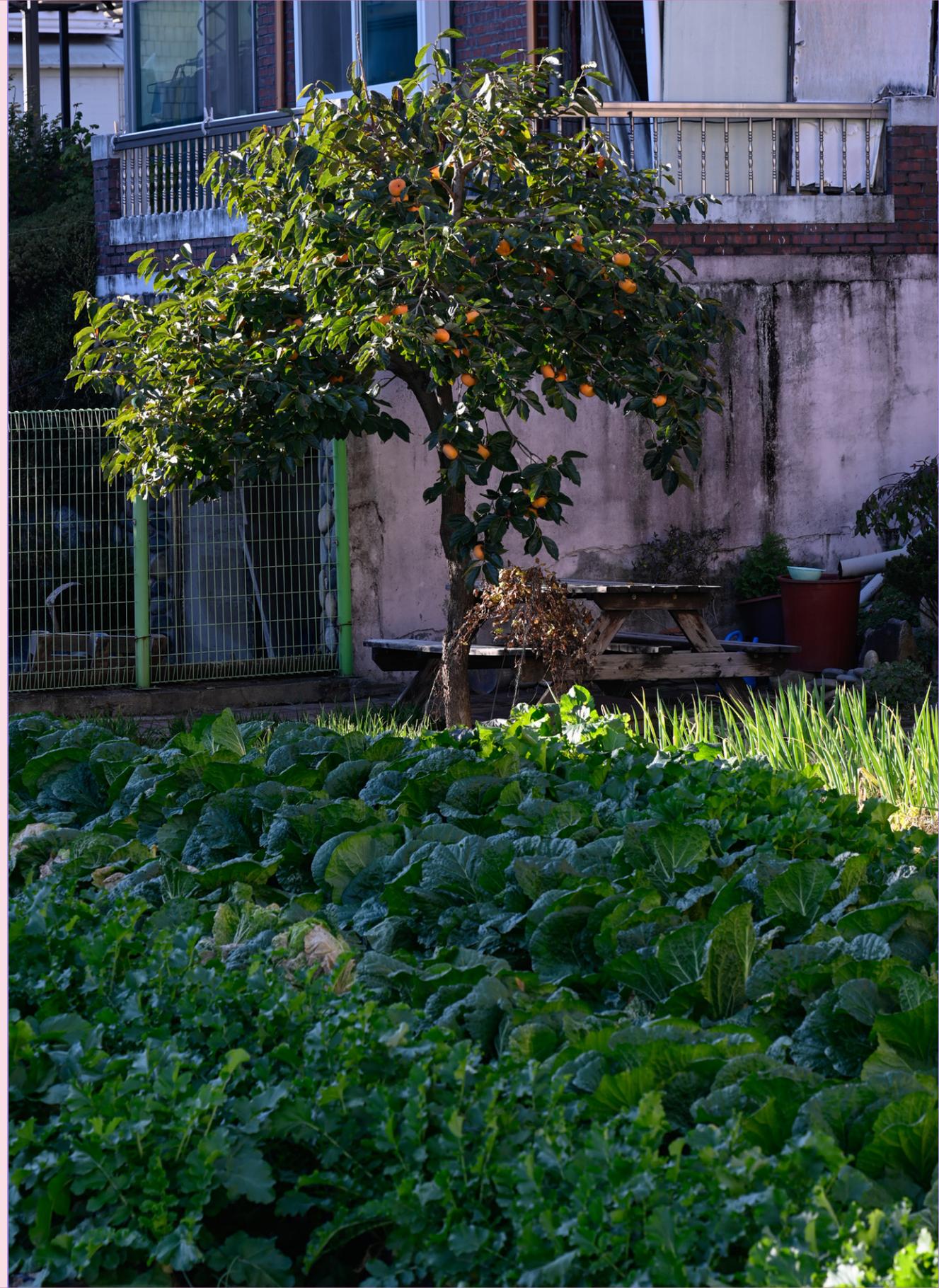
최준호

연수동의 으뜸마을, 동수마을!

고양이들의 풍성한 먹거리 가득한 정갈한 텃밭과 꽃밭.
동수경로당 최준호 회장님댁 앞마당이다. 유머와 매력 가득한 남자.
그 남자가 가꾸는 마당정원을 특히 냥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계절마다 싱그러운 야채들이 자라고 향긋한 꽃의 향이 끊임없이 풍기니
이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지나간 여름 이곳에 줄무늬 수박이 덩굴덩굴, 노란 참외가 웅기증기 모여
나 또한 시선을 땔 수가 없었다. 어쩔 이렇게 깔끔하게 잘 가꾸시냐 여쭙는데
이곳은 아내가 모두 가꾼다며 본인은 못하신다며 허허 웃으신다.
그저 늘 냥이들과 전쟁중이시라고!

옛 연원(연수동의 옛말)의 동쪽을 지키는 망대가 있던
동수마을 어른, 동수경로당 최준호 회장님댁이다









현주슈퍼정원

한경숙

보석 같은 이웃, 보석 같은 그녀!

현주슈퍼의 명칭 '현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신다. 실망이다.

혼자서 기대 잔뜩 했다 전 가게 사장님이 지어놓은 명칭을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다. 맞는 듯하다.

자신보다 오래 이곳을 '현주슈퍼'라 많은 분들에게 불렀던 곳이 주인 바뀌어서 사라지면 그 또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정겨운 슈퍼 앞 들마루에는 오가는 주민들의 사랑방이다.

심지어는 건너편 방앗간 앞에도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가 끊임없다. 이렇게 현주슈퍼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이웃이 모여 놀고 음식도 나눠 먹는다.

심심해? 궁금해? 그곳에 가면 이웃이 있다.

보석 같은 이웃을 반기는 현주 슈퍼 한경숙 사장님.

그녀처럼 피어난 보석 같은 꽃. 호야



현주슈퍼

☎ 845-3405 정육점

현주슈퍼

☎ 845-3405

나스콤 CCTV
NASCOM
02-845-5007

동수10길 21
Dongsu 10-gil



현주슈퍼에서

한잔의 여유를
즐기세요?

원두커피

HOT 1,000원
1,500원



현주슈퍼

KT

얼음판매
현주슈퍼







연수에덴정원

조태희

마을 내 쓰레기 모아두는 쓰레기 분리 수거장 옆에 초록 짙은 한 평 정원

이곳을 몇 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 본 충주연수교회 조태희 목사님, 늘 실패실패를 거듭하며 올해에는 마을 권용희 통장에게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보자며 제안하셨다. 충주시민정원사도 더해진다. 연수동행정복지센터도 함께한다. 주인이 모인다고 하니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싶다 하신다. 한 평 정원으로 마을을 깨끗하게 하자고 민.관.학. 마을 어르신까지 모두 뭉쳤다. 이렇게 한 평 정원은 주민 모두를 기쁘게 하는 연수에덴정원으로 명명되어 새롭게 탄생하였다.

제안자. 충주연수교회 조태희 목사님, 매개자. 동수마을 1통 권용희 통장, 협력자. 동수 경로당 어르신, 동수마을 5통 한경숙 통장 & 충주시민정원사(연수동)











동편마을

연수꽃동산

공인중개사 김영미정원

바퀴정원

연수주공2단지 정원

연원시장 한평정원 2

산야초 건강원 정원



연수꽃동산

허선아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연수 꽃동산
내 집 정원처럼 만들어가요!

지속적으로 꽃동산을 가꾸다 보니 뿌듯함도 느끼고 자신에게도 토닥토닥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집 선생님, 허선아 통장을 만났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예쁘고 좋다고 말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3년 전, 출근길에 길목 아이파크 아파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지날 때마다 악취가 나고 주민들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다고 한다.

개인소유의 땅이라 애로사항이 많아 계획하는 대로 꽃밭을 만들 수 없었지만 요건에 맞춰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조금씩 모습이 갖춰지는 꽃밭을 보면서 뜨겁게 올라오는 벅참도 느끼고 힘이 생겼이라며 꽃밭 소개를 한다. 꽃밭을 보니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 작지 않은 규모다. 돌이 많은 척박한 땅에 내 집 정원처럼 만들어진 애정이 담긴 꽃밭이다. 꽃모종도 온전히 기부받아 보식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러 손길이 필요한데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다고 한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주로 새벽에 나가서 작업을 했다. 시간 날 때마다 친정에 가서 꽃모종을 분양해 오는 것이 일과였어요. 한 포기씩 빈 공간에 채워질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고요. 그때는 머릿속에 꽃만 생각하고 꽃만 보였죠 라며 어느새 공감하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다. 안타까운 애기지만 울봄에 무릎관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한다. 조금 무리하게 무릎을 쓰다 보면 통증이 올라와 약으로 대체할 때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건강 케어도 잘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면 하는 바람이다. 함께 해보라는 조언도 있고 해서 마음 맞는 통장(원선희, 이계순)과 함께 의논하며 꽃밭을 가꾸고 있다. 가끔 일이 많을 때는 봉사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풀도 뽑아주고 꽃도 심어주고 항상 감사하다고 한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에 봉사의 손길로 향기 나는 꽃밭으로 탄생이 된 것이다. 연수동에는 각 단체에서 가꾸는 꽃동산이 곳곳에 많다.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멋진 정원으로 가꾸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윤종미 편집위원, 『연원마을 제26호』 칭찬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수 꽃동산 가꾼 허선아, 원선희, 이계순 통장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연수 꽃동산
(아이숲어린이집 옆)
쓰레기는 싫어요
서편, 동편마을, 아이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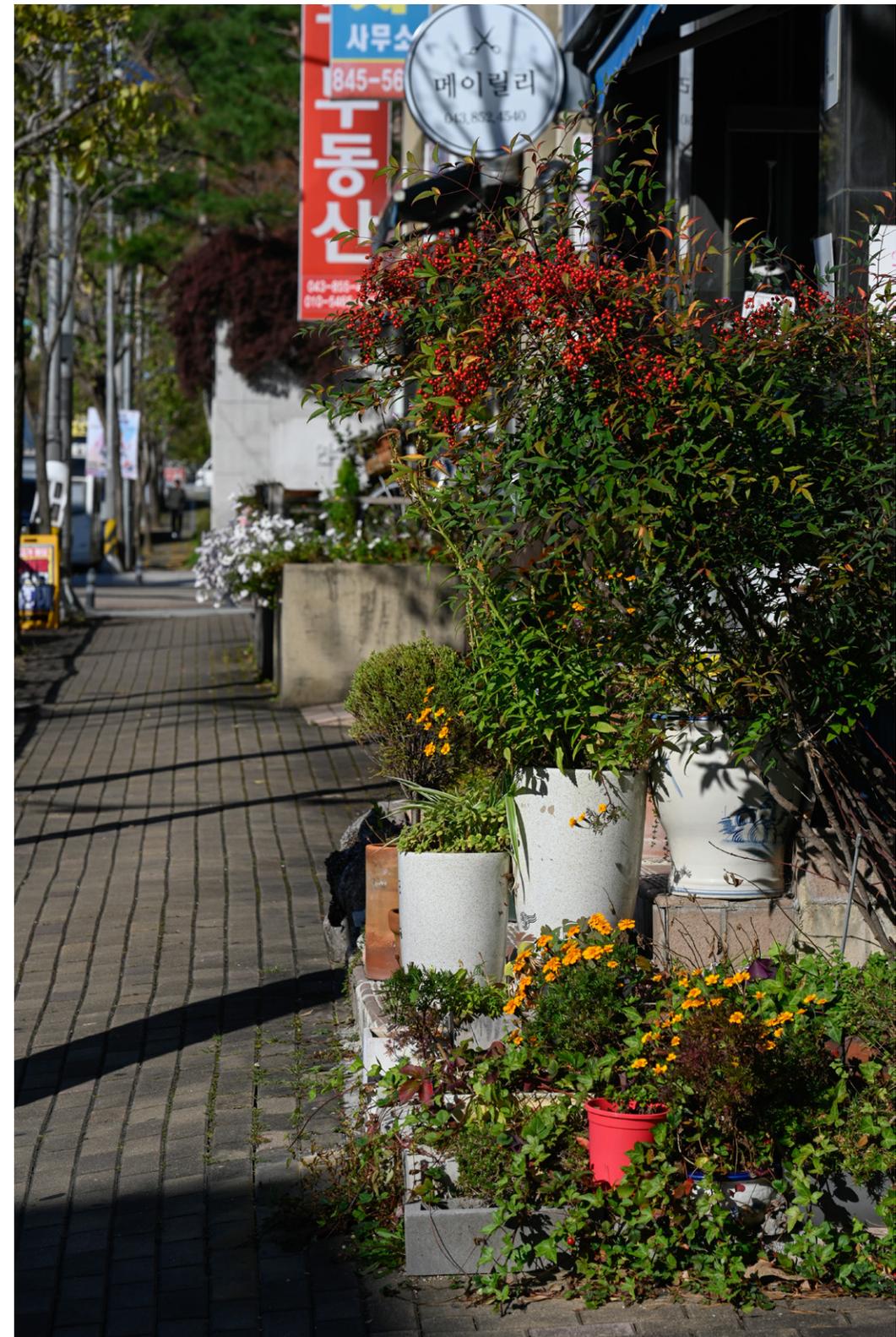


공인중개사 김영미 정원

층층 계단 가득한 다양한 모양의 화분들이 자그마한 동산을 이루고 있다.
야생화와 초화류 그리고 초록 나무도 심어 매일 살뜰하게 가꾸고 있는
김영미 공인중개사를 자주 볼 수 있다.
아이좋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나들이에 꼭 거치는 이곳.
글을 알까 싶지만, 아이들을 위해 또박또박 이름표도 화분마다 꽂아 놓았다.
해마다 이쁜 만큼 비싼 화초를 사서 심으면 몰래카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뽀
아가는 이웃들이 종종 있어서 속상함과 실망이 주기적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초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물도 주며 내 일상 속에
가드닝이 있어 좋다는 김영미 공인중개사님!
늘 응원합니다.









바퀴정원

충주시 연수동 805-8

지중현 연수동 주민자치 부위원장
김정자 연원꽃밭 부대표
김화자 연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나를 기다리는 한 평 정원, 연수동 정원문화 꽃피다.
정원 향기 가득한 연수동으로 오세요

아자~ 해보자! 이렇게 한 목소리, 한 품새로 잘 놀고, 잘 일하고, 잘 품는 연수동 막강 세 여인이 가꾼 꽃마차가 있는 바퀴정원이다. '연수동의 강점은 바로 마을정원이다.' 라는 의견으로 시작된 우륵문화제 시민 퍼레이드, 같이 모여 시작된 다양한 의견 중 바로 제안된 꽃마차! 리어카는 내가 준비하고 디자인은 위원님이 하시고 색칠은 모두 모여 같이 하자며 첫 회의에 일사천리 바로 결정되어 어느새 리어카가 행정복지센터 마당에 등장, 어느 날 리어카는 노랑계 옷 입고 갓가지 꽃들로 장식되더니 그 위 널찍한 마당이 생겼어요. 동편마을의 띠풀언덕머리처럼 살랑살랑 바람을 일으키는 슈크렁! 주위에는 소박한 꽃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똑딱! 대단한 리어카 정원 완성. 바로 꽃마차 완성!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너무 멋지고 뜻깊어서, 작은 음악회가 있는 연원시장 주차장까지의 목숨 걸린 이동, 그리고 퍼레이드 시작점인 삼원초등학교 앞까지의 대단한 꽃마차의 이동은 앞으로 두고두고 연수동의 크나큰 사건의 한 장면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 크나큰 사연이 있는 꽃마차가 늘 지지분이라는 표딱지가 붙은 세모난 공간(영진빌딩 뒷편)에 자리 잡았다.

귀하고 귀한 김장독 보물 향아리도 이곳으로 이사했다. 연수세원아파트 입주부터 30여 년 동안 함께 이웃에게 김치 나눔에 도움 준 보물단지이다.

대단한 꽃마차와 보물 향아리가 있는 이곳. 사계절 꽃과 나무의 향기로 이곳을 지나는 이웃에게 긍정 에너지와 깊은 정이 전달되길 바라는 세분의 대단한 여인들의 바람을 품고 있는 바퀴정원이다.









연수주공2단지 정원

충주시 연수동 주공길6

오순녀

받은 사랑 늘 베풀며 살고 싶다는 오순녀 통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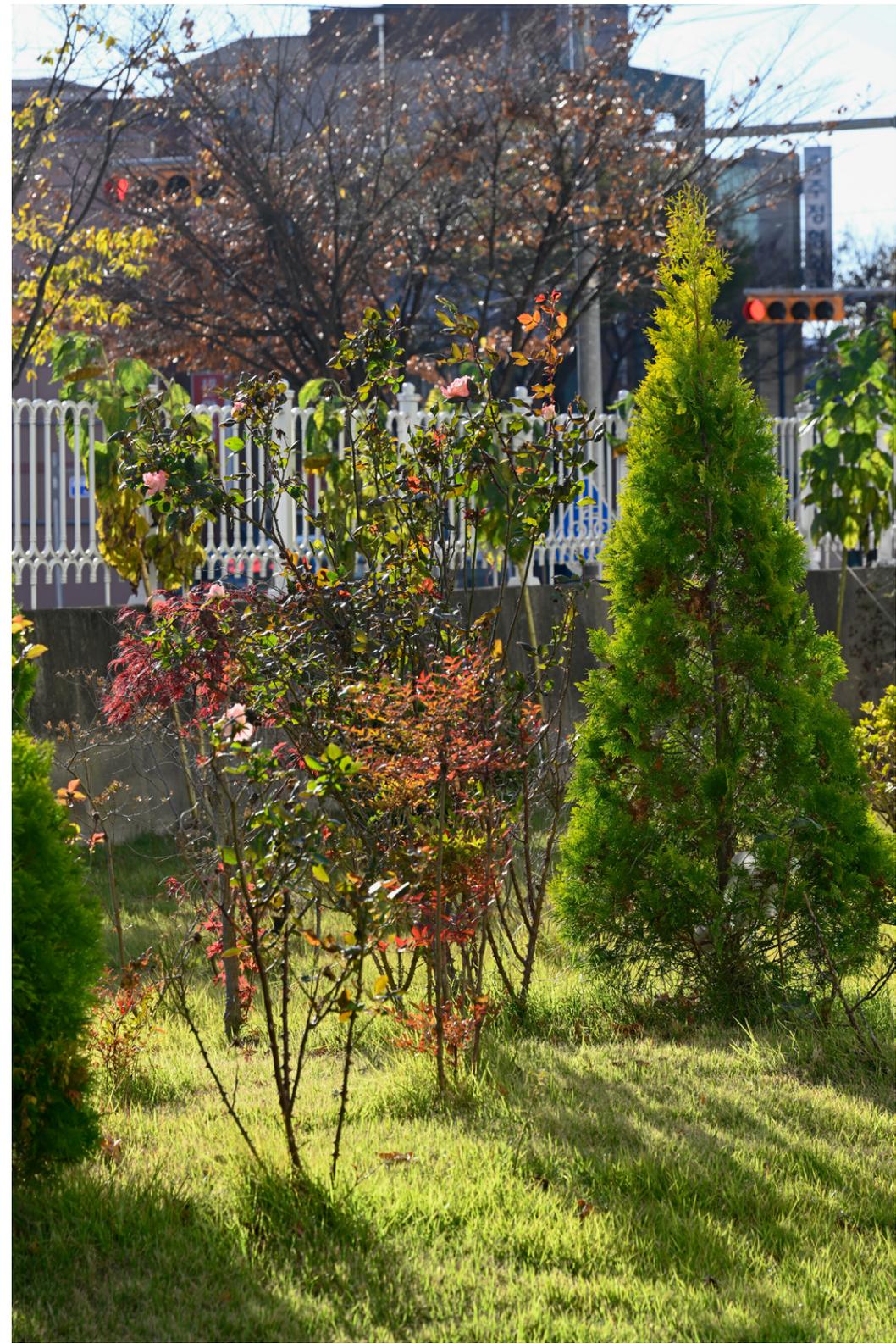
교통사고 당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심정으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 사고 후유증으로 자신도 치료를 받아가며 생활하지만 요양보호사로 늘 어르신들 도우며 즐겁게 살고 있다.

아파트 내 활동에도 늘 적극적이다. 주기적인 기부로 나눔 하고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 해 주는 만능스타 오순녀 통장님.

아파트 앞 푸르른 정원이 강직하고 성실하며 사랑 또한 가득한 정원 가꾸는 그녀 닮았다.









연원시장 한평정원2

김명숙

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반기는 김명숙 사장님.

손큰 요리사, 단골손님들의 중재 역할까지 역임하며 이곳을 15년 넘게 지키고 있다.

그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낸 흔적으로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해

저녁 장사만 한다는 어느새 가녀려진 아름다운 김명숙 사장님.

2021년 어느 날, 수십 년 깊게 깊게 쌓여있던 쓰레기를 행정과 치우며, 방임되었던 그곳은 영양분 가득한 땅이 되어 정성스럽게 골라온 화초를 맞이했다. 사느라 바빠서, 눈 코 뜰새 없어서 자신과는 관계없는 듯한 화초가 이제는 출근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 눈인사하고 시시때때로 예쁘게 가꾸려 궁리궁리한다. 가끔은 “충주시에서 공짜로 주는 거지?” 하면서 건내는 손님 한마디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사면 어떠하리, 시가 사면 어떠하리. 이쁘면 그만이지 하며 통큰 주인장처럼 “이쁘지요?” 하며 농을 건넨다.

오는 손님들에게 푸짐한 음식 대접과 때마다 동네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하며 연원시장상인회 부회장직을 맡아 시장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산야초 건강원 정원

한정이

예성로 길을 걷다 보면 건강원 앞 크고 작은 화분에 색다른 화초들이 즐비하게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건강원이어서 나오는 웬지 아직은 관계없는 듯하여 무심코 지나치기만 했는데 화초 가꾸는 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마주하니 함박 미소로 꽃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어느새 담이 스르르 낮아진다.

실내에는 명산에서의 인증샷이 있는 자랑 뽕뽕 커다란 현수막이 자리하고 있고 벽 한 쪽에는 전국에서 수집한 다양한 코카콜라의 병들이 뿔뿔이 뿜내고 있다. 너무나 깔끔해서 걸기조차 조심스러운 내부에 화사한 꽃과 초록의 화초 소품들이 예쁘게 자리잡고 있어서 건강원의 모토가 어떤지가 느낌으로 다가온다.

산과 들로 나가 약초를 캐고, 그러다 발견한 세월이 느껴지는 병들이 그 장소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담겨있다. 묵묵하게 정성을 다해 내린 다양한 음료 봉지는 사장님의 정성과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세월의 소중함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살아간다.



생생포 흥배 호양비 양민 닭봉 염산장
척사도 반 트 배들 아스 뇌
죽





경남건강원
010-348-3612 / 010-2332-4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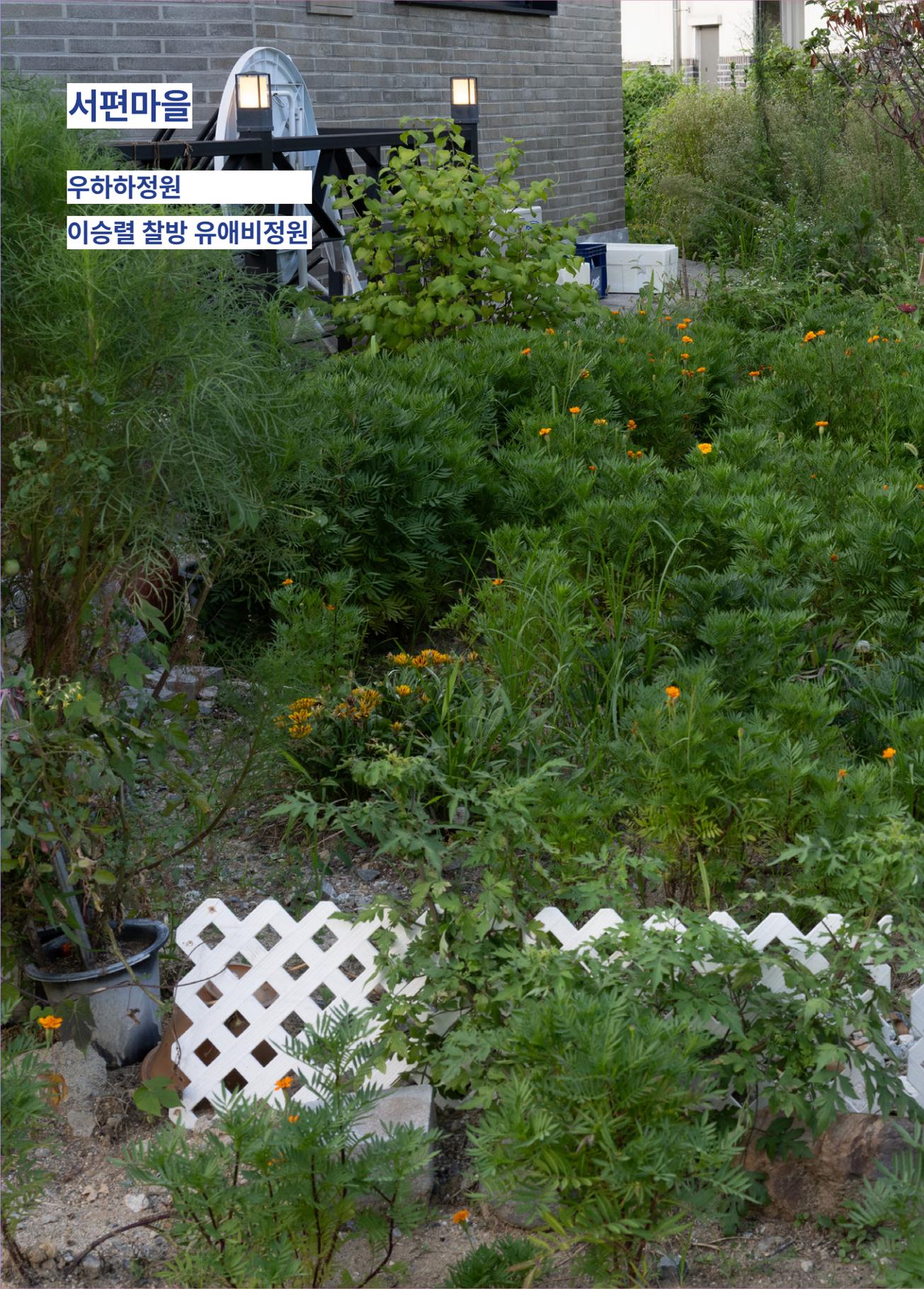
야초
경남건강원
생생포 취사도 즐거움
호양비양민닭봉염산장
백파트배들밭이소 뇌
즐거움즐거움즐거움즐거움삼삼
010-348-3612 / 010-2332-4023 / 010-7305-9406

홍남달밭

서편마을

우하하정원

이승렬 찰방 유애비정원



우하하 정원

여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골목길이 가득 채워진다.
통통 튀는 꽃들로 가꿔진 그 옛길을 걷노라면
그리 웃게 된다. 우하하~





유하하
한우암소
단체 예약 환영
851-7660

NASC
845-9007

Carrier

꽃길



이승렬 찰방 유애비 정원

김향희

그랬더랬지
귀한 마음들이 담긴 비석이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적에
또랑을 잇는 하나의 발판으로 취급되었지.

그 곁에 작은 정원이 생겼네.
그 알아주지 않았던 비석의 자리를 알아주고자
다양한 불평의 소리도 담아서
작은 간판 하나 세웠네.
이승렬 찰방 | 유애비 정원

그 알아주지 않았던
연원역 찰방이었던 이승렬 유애비가
이곳에서 발견되었노라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예쁜 꽃들로 지켜줄거라고,

마을 아이들의 참새 방앗간, 아이스크림할인마트연수점.
마을정원의 촉촉함을 책임지고 있는 김향희 사장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이 건립했던 유애비 표식 정원









도시기억아카이브

당신이 꽃 연원뜰

발행

메모리아 도시기억아카이브 총주

발행일

2023년 12월

글

전미정
연원꽃들

사진

안동호

주관 주최 같이같이동아리 연원풍경

후원



* "연원뜰 꽃보다 당신"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메모리아"와 "연원꽃들"단체의 협업 작업으로
"같이같이동아리 연원풍경" 이름으로 진행하였습니다.